

648억 전액 도비 부담... '전남기록원' 설립 발목 잡나

現문서고 수용률 87% 포화 '초임기' 전남도, 이달 중 최종 후보지 선정 관련 법률 '국비 지원' 규정 불구 지원 사례 전무...실제 추진 '난망'



포화가 임박한 전남도청 문서고.

전남도가 도내 생산 기록물 관리 전문기관인 가정 '전남기록원' 건립 후보지 선정 절차에 돌입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가 648억원의 사업비를 자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열악한 재정 여건상 실제 건립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특히 관련 법령상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이 명문화돼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국가 지원 사례는 전무해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도비 5천400만원을 투입, '전남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용역 주요 과제는 ▲전남 기록물관리기관 입지 선정 및 환경 분석 ▲지역·역사성 및 아카이브즈 특수성 반영 건축계획 수립 ▲건립 필요성·적시성 분석 ▲경제·사회·지역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등이다.

현재 전남도는 전남 기록물관리기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2005년 폐교 이후 20년 이상 방치된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부지 등 총 5곳의 도유지를 대상으로 설립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최종 건립 후보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지 결정에 이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중앙투자심사, 자체 공유재산 심의 등 2027년까지 사전행정 처리 절차를 마무리한 뒤 실시설계, 공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30년 준공한다는 게 전남도의 구상이다.

2007년 4월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광역지자체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영구 보존 관리를 위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운영을 의무화했다.

법 시행 18년이 지난지만 기록관을 운영 중인 광역지자체는 경남도(2018년 준공, 사업비 127억원), 서울시(2019년, 498억원) 등 2곳에 불과하다.

경기도(2026년 개원), 경북도(2027년 개원)는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 대구시·강원도는 조례 제정을 마치고 예산 확보와 기본 계획 수립 절차

를, 인천시·충남도·전북도·제주도·부산시·세종시 등 8개 지자체는 연구용역을 거쳐 설립 계획을 수립 중이다.

전남도는 도청 내에 660㎡ 규모의 문서고를 운영하고 있다. 보존 용량은 종이기록물 기준 16만 5천권으로 현재 수용률은 87%다.

실·과·소 등이 자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이 방대해 사실상 이미 보존 용량 포화 단계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는 3~4년 후면 문서고 수용률이 10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체 기록원이 없는 전남도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보관해야 할 30년 이상 보존 대상 지정 기록물도 문서고에 함께 보관 중이다. 주요 정책 자료와 역사를 증명하는 사진, 영상 등이 영구 보존되지 못한 채 훼손될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남기록원 설립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연면적 1만3천474㎡ 규모로 건립 시 사업비는 총 648억2천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남도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전남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는 지방기록관 건립을 위한 국고 보조를 건의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지자체 자체 부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8항은 '국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지자체 중 국비를 지원받은 사례는 없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은 의무 사항임에도 막대한 자체 예산 투입으로 인해 전국의 관련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정부에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하는 한편, 도내 생산 기록물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기록원 설립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광주 스트릿컬처 페스타 '후꾼'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광주 대표 여름 축제 '2025 광주 스트릿컬처 페스타'의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배틀라인엑스'가 열려 전국에서 모인 댄서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정책실장에 무안 출신 김용범 前기재부 차관

이재명 정부대통령실 인선

정무 우상호·홍보 이규연·민정 오광수

경제 하준경·재정 류덕현·사회 문진영



김용범



우상호



이규연



오광수

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일 이 대통령은 무안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기재부 1차관 외에도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다. ▶2면에 계속 /김진수 기자

Today

광천동 '들불야학 산실' 화폭에 담다 7면

치솟는 계란값...정부-농가원인 공방 12면

KIA 윤영철 '다시 찾은 환한 미소' 16면



태양·바다·호수를 품은 '관광레저, 에너지산업'의 최적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구성지구

정원, 재생에너지
스마트도시



삼호지구

골프산업 중심의
관광레저



삼포지구

모터스포츠,
자율주행 모빌리티

